

서충공업기념관 개관식에서 드리는 말씀

鄉約

共同性
공동성을 실천하는
鄉約의 도시

이기용 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축공업기념관 개관식에서 드리는 말씀

鄉約

공동성^{共同性}을 실천하는
향약^{鄉約}의 도시

이기용 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차례

- 非策共業記念館
서축공업기념관 개관에 즈음하여 다시금 가다듬는 우리들의 결의 決意 5
- 共同性
공동성을 실천하는 「항약」의 도시 11
- 문화시설분담금·건설지체상금(일단계), 공동시설분담금·건설사업분담금·건설지체상금(이단계)은 무엇인가 26
- 〈위대한 계약서〉원문 30
- 〈선한 계약서〉원문 譯 33
- 쌀을 짓고, 말을 짓고, 인간을 짓는 「책농장의 도시」 37

서축공업기념관 개관에 즈음하여 다시금 가다듬는 우리들의 결의 決意

출판도시라 일컬어지는 우리 책마을 共同體 공동체가 팔팔 울림피 무렵에 발의되어, 온갖 暗中摸索 암중모색과 갖은 격랑을 헤쳐 온 지어언 四半世紀 사반세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의 도시를 세워 보려는 지혜를 西歐 서구의 도시사에 서만 찾지 아니하고, 이 朝鮮 조선땅의 역사 속에서 얻어내려 했던 우리들의 노력이 새삼 몇몇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 「향약」으로부터 마을공동체의 혼을 魂 찾으려 했던 발상은, 지금 생각해 봐도 놀랍고도 자랑스런 일이었습니다. 향약이란, 우리의 先人 선인들이 이 땅과 이 역사 위에 理想郷 이상향을 세우리라 꿈꾸며 가다듬어 왔던 마을 자치규약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천구백오십년 成均館 성균관에서 펴낸 《향약집요》란 鄉約輯要 소책자가 있습니다. 향약이 그 동안에는 節庵 정암이나 退溪 퇴계 또는 栗谷 율곡에 의해 純漢文 순한문으로 기술돼 왔는데, 광복과 함께 되찾은 우리 말로 정리한 최초의 향약입니다. 이 오랜 우리만의 鄉村 향촌 자치규약을 가지고, 그 글의 원래 뜻을 훼손하지 아니 하고 오늘의 문맥에 맞도록 다시 정리해, 년지시 「책마을의 향약」이라 이름지어 작업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德業相勸 덕업상권 — 좋은 일은 서로 권해 장려한다.

둘째, 過失相規 과실상규 — 잘못된 행실은 서로 규제한다.

셋째, 禮俗相交 예속상교 | 서로 사귄데 있어 예절을 지킨다.

넷째, 患難相恤 환난상홀 |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다.

한 나라에는 國法 국법이 있고 또 지방마다 법률과 규약이 있지만, 또한 마을마다 공동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따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판도시 집행부는 추진 당초부터 이 향약의 문맥을 하나하나 짚어 가다듬으면서, 오늘 의 감각과 인식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여러 문건과 지침과 규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이 도시를 이끌어나 이 도시를 대변할 가장 기본이 되며, 이 도시를 이해하는데 키워드 곧 「열쇠말」이 되는 단어 넷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왔던 것입니다.

節制 절제 (Moderation) | 均衡 균형 (Balance) | 調和 조화 (Harmony) 그리고 人間愛 인간애 (Love)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지향성을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가치로 합의한 다음, 이를 높이 내걸어, 출판도시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나 이 도시를 바라보는 모두로 하여금 유념하도록 했습니다. 이 목표가 이 도시의 실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상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건축주인 출판인들과 건축가들(도시계획가들, 조경가들 포함) 사이의

소통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쓸데없는 이해 상충과 물이해로 충돌하는 일이 제발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두 집단 간의 공동계약인 〈위대한 계약서〉(일단계에서의 설계계약)와 〈선한 계약서〉(이단계에서의 설계계약)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 출판인과 건축가는 멋진 세리머니를 통해 공동계약식을 거행하여, 그 뜻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두 집단 간에 맺은 약속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일을 이루어냈다는 자긍심^{自持心}으로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 문건들은 앞으로 다가올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우리로 하여금 큰 용기와 지혜를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문맥에 드러나는 참뜻은 앞의 네 키워드 못지않게 이 도시를 이해하는 큰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시점에서 우리는 부단한 자세로 이단계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에 착수합니다. 영화는 책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스토리나 서사^{敘事} 없이 영화가 태어날 수 없듯이, 「영화의 도시」는 「책의 도시」에서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출판인과 영화인들은 힘을 합쳐, 영화가 이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영화를 위한 공동시설을 마련할 것입니다. 영화 종합 촬영소를 건설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런 공동시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동안 이단계에서는 세 인쇄소(네오프린텍, 스크린그래픽센터, 영신사)와 한 영화사(데몰리션)가 완공을

보았고, 화인링크(인쇄), 신영사(출판), 인피니티(영상)가 공사 진행 중이며, 명필름(영상)이 오늘 착공됩니다. 또 영상자료원, 정민문화사, 백산출판사, 아카넷, 도서출판 혜지원, 싱크피쉬, 윈즈데이 등의 설계심의가 완료되어 곧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개 출판사(세화)와 두 개 인쇄사(성원피앤아이, 예인미술)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 계약 과정에서, 그리고 착공 이후 시공의 진행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정마다 더 적극적으로 야무지게 다잡아야 할 요소들이 순간의 실수로 간과되고 있음이 코디네이터와 집행부에 의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원칙이라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어떤 원칙이든 당초부터 꼭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켜질 수 없는 원칙이라면 당초부터 세우거나 약속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에는 신뢰가 지켜지고, 서로 존중돼야 합니다. 그리고 질 좋은 책과 영화를 기획하고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공간의 연출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함께 수립한 도시계획의 지침에 맞도록, 개별 건축의 공간설계와 시공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공동설계, 공동시공, 공동감리(공동감독)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이번 「책과 영화의 도시」 이단계 건설본부가 입주할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공동성의 실천을 다시금 새로이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 건축의 기획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도시의 두번째 인포룸입니다. 첫번째 인

포룸은 천구백구십구년 구월 구일 개관한 일단계 건설본부 건물입니다. 민현식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이 건축물은 이 도시에 처음 들어선 건축으로, 「책의 도시」가 지향하는 방향타를 정확하게 잡아 이끈, 빛나는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출판도시 이단계 건설의 지휘소가 될 두번째 인포룸은 십사년 만에 역시 민현식 건축가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출판인과 건축가들이 협업을 통해 출판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뤄 왔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 건물의 명호를 「서축공업기념관」書築共業記念館이라 호칭키로 하였습니다. 이 명호는 출판도시 조성 이십오년의 역사가 출판인과 건축가가 협력하여 이루어낸 업적이라는 깊은 뜻을 담아 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앞으로 이단계 「책과 영화의 도시」의 성과를 보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영화촬영소」와 같은 건물이 출판인과 영화인의 협업協業을 기리는 명칭으로 불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호칭 작업은 우리 출판도시를 명소화名所化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도되고 있는 일입니다. 「서축」書築이라는 호칭은 이천십이년 가을, 일본 도쿄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의 주요 건축가와 북디자이너들이 모여, 「파주출판도시처럼 건축과 출판이 협력한다면 어떤 성취를 이룰까」하는 실험을 통해 문화의 융합과 통섭의 결과 전시회인 「서축전」書築展을 열어, 이미 멋지게 원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축공업」書築共業이란 우리 출판도시를 대변하는 언어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엘에이치(LEH)공사와 조합 사이에 그동안 토지대금 정산 문제로 크게 이견을 두어 왔습니다. 일단계에

서부터 당국의 불성실한 원가 공개로 용지가격 정산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간 이사를 장을 중심으로 하여 정확한 조성 원가표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임을 감안하여, 당국의 행정 감시와 의회 감독이 최선을 다해 배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조합원들의 건축비용을 아끼는 데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팔월 이십일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보고되어, 정해진 설계비 요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것과, 건축의 조기 착공을 독려할 수 있게 연동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단계의 현장은 적기에 착공되고 완공되지 않으면 도시개발상 전체적으로 엄청난 차질과 손실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그 시기를 철저히 지키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우리 출판도시 일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조성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상식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착수한 경우와 착공이 지체된 경우의 사이엔 당연히 차별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별된 대우가 전체적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書架共案紀念館

서축공업기념관 개관에 즈음해, 이런저런 일을 상기하면서 조합 집행부 - 사무국과 건축코디네이터와 블록건

心機一轉

축가와 건설회사 등 모든 이들과 함께 심기일전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다짐하고자 합니다.

공동성을 실천하는 「향약」의 도시

「향약」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마을 자치규약입니다. 이 향약을, 나는 여러 뜻있는 출판인, 건축가들과 함께 출판도시를 만들고 가꿔 가면서 이 도시를 지탱해 나갈 정신의 규약으로 삼고자 했고, 또 끊임없이 책마을 사람들에게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상이나 실천은 난처할 정도로 어렵고 답답한 일입니다.

향약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출판도시의 이념 중 하나가 바로 「공동성의 실현」입니다. 「나」 하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공포의 시대」에, 단순히 생계를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했고, 이것을 나는 선인先인들의 지혜에서 빌려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약이 출판도시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을 바랍니다.

저 중국의 여씨^{呂氏} 형제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김안국^{金安國}, 조광조^{趙光祖} 같은 진보적 인물에 의해 조선 땅에 보급되기 시작해, 퇴계와 율곡^{栗谷}에 이르러 비로소 정착된 우리 고유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오늘의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삶의 뿌리」를 되새길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대의 향약이 요구하는 바 그대로 오늘의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 민족과 우리 삶의 근간이 되면서 되새겨야 할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촌규약의 줄임말인 향약은, 중국 북송 말기 陝西省 섬서성의 남전마을에 살던 여대충, 여대방, 여대균, 여대림 등 여씨 네 형제가 향촌을 교화·선도하고 교육을 진흥하며 상부상조의 풍조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덕업상권, 과실상규, 禮俗相安 예속상교, 患難相恤 환난상휼이라는 네 가지 강목을 내걸고 시행한 이른바 남전향약이 그 기원입니다. 이후 남송의 유학자 주희, 곧 주자가 이를 가감·증보한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자신의 문집인 《주자대전》에 수록하면서 오늘날까지 「여씨향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향약이 조선에 보급된 것은 십육세기 이후 「주자증손여씨향약」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인데, 당시 향약은 향촌자치라는 이름 아래 하층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교적 예절과 미풍양속을 향촌사회에 널리 보급하여,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재난에 처했을 때 서로 돕는 자치규약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향약을 중국 「여씨향약」에서 전래된 것이 아닌, 전통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공동체적 相規相助 상규상조 풍습의 발전된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려 태조 때 실시한 事審官 사심관 제도—중앙 귀족으로 편제된 家族 호족들에게 출신 고을에서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교화와 세금 부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 향촌 운영을 맡게 한 제도—나, 麗末鮮初 여말선초에 설치한 留鄉所 유향소 등에서도 이미 향약의 의미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향소란 지방의 악덕 관리를 규찰토록 하여 鄉風 향풍을 바로잡기 위해 설치한 향촌 자치기구입니다.

이후 유향소의 존재가 거둬지다가 中宗 중종 때에 이르러 정치쟁점화하기에 이릅니다. 당시의 집권세력이던 보수

훈구파는 유향소를 폐지하자는 쪽이었고, 정암 조광조를 위시한 개혁 사림파는 유지론을 주장했는데, 사림파는 훈척들의 지방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던 경재소와 유향소 대신 향약의 보급을 제안합니다.

중종반정 후 정계에 등장한 사림파 관료들은 유향소 기능의 부진을 회복하기 위해 「여씨향약」을 실시토록 하여 그간의 옳지 못한 풍속을 교정하고자 했고, 중종 십이년(천오백십칠년)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은 《여씨향약》에 이어 《인해본여씨향약》을 간행 반포함으로써 향약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종 십사년(천오백십구년)에 일어난 기묘사화로 조광조 이하 칠십여 명의 사림파가 참화를 당하자 향약은 이내 폐지되기에 이른다.

한편, 조선 향약의 시원은 태조 이성계가 만든 《헌목》 사십일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효령대군은 《헌목》을 증보하여 《향헌》 오십육조를 만들어 반포했습니다. 물론 《헌목》은 조선 후기에 활발히 시행되던 향약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목》과 《향헌》은 공통의 향규로서 조선조 오백년간 준행되어 왔고, 향약의 시초라고 일컬어지는 《향헌》은 향촌사회의 교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군림하는 사족 중 현족들을 위한 향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선사회에 「여씨향약」이 보급 시행되기 전에도 이미 자생적인 결계가 향촌민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교화와 지방통치의 보조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향헌》을 반포하여 유향소를 통해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중종 십이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령으로 향약의 시행을 독려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

되지는 못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정서 속에서 만든 여씨향약이 조선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다소의 모순과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향약은 시대와 지역을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며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특히 율곡 이이는 여씨향약과 퇴계의 예안향약을 근거로 서원향약을 시행했고, 이후 이를 수정·증보하여 해주향약을 만들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된, 가장 완벽한 향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의 글에서도 밝힌 바처럼 우리말로 정리된 최초의 향약인 《향약집요》^{鄕約摘要}라는 문헌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천구백오십년 성균관에서 발간한 소책자입니다. 당시 심산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의 책임을 맡고 계셨던 때였고, 따라서 나는 심산 선생께서 직·간접적으로 이 책자의 출간을 주도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이 책자는, 퍼낸이의 서언으로 시작하여 향약의 강령, 조목, 기관, 그리고 실행방법까지, 오백년을 이어온 향약의 요체가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언에는 향약이 『우리 유도의 사명인 수제치평의 실험장이 될 뿐 아니라 현대 지방자치의 이념과도 합치되며, 목하 우리 국가사회의 병적 정세에 비추어 육진의 한 양제가 될 줄 믿기로, 그 중 실행가기할 자를 역출하여 강호에 소개』^{江湖}한다고 되어 있으니, 퇴계와 율곡 이래 전해내려오던 향약의 내용을 당시의 실정에 맞도록 간추렸음을 알겠고, 특히 한문으로 내려오던 향약을 일제로부터 광복된 조국의 시의에 맞게 최대한 한글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 담긴 향약을 나는 「심산향약」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나는 「심산향약」을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 특히 우리 출판도시 책마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음미하고자 합니다. 이는 책의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출판인들과 건축가들이 맺었던 「위대한 계약」이나 「선한 계약」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 이 도시의 구성원들이 앞으로의 날들을 좀 더 아름답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정신적 규약으로 자리하기를 소망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리하여, 「심산의 향약」 중 요체가 되는 향약의 「강령」과 「조목」을 오늘의 말로 가다듬어 아래와 같이 소개해 봅니다. 오늘의 감각이나 실정과 는 거리가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 내용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는 상통할 것입니다. 나의 서툰 솜씨이나, 많은 깨달음을 주리라 믿습니다.

덕업상권 — 좋은 일은 서로 권하여 장려한다

성심으로 부모를 사랑하여, 맛있는 음식이 있거든 먼저 드리며, 그 뜻을 거역하지 않고 언어를 공순히 하며, 자신의 손으로 얻은 재물이라도 부모에게 바치고, 병환이 있거든 널리 의약을 구하여 마음껏 힘껏 구료하고, 상사가 나거든 애를 다하며, 장사와 제사는 예문을 따라 행한다.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여, 국사에는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 일을 맡은 때는 직분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항상 순국의 정신으로 그 임무를 완수한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여 유무를 상통한다. 곧 가진 것을 서로 상의해 나눈다. 음식을 서로 나누며, 범사를 서로 구조하

여 일신과 다름이 없이 한다.

· 자기보다 연령이 높은 분을 만나는 경우, 인사를 먼저 하고 언어를 공순히 하며, 가던 행로를 멈춘 뒤 사양하되, 급한 일이 있어 이른보다 앞서 가야 할 때에는 그런 인사를 아뢰고 간다.

· 부부가 서로 공경하여 다투거나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며, 흉이나 허물없이 지나치게 친하여 가까이하지 않으며, 서로 인정 없이 모질게 대하지 않는다. 마을 안에서 남녀가 길에서 만나는 때에는 서로 길을 양보하여, 친밀감을 표시 하되 접촉하지 않는다.

· 언어에는 민음이 있으며, 행실은 공경하며, 분을 참고 욕심을 억제하며, 선을 본받고 허물을 고치며, 친족이 서로 화목하고 이웃 사이엔 교의가 있어야 한다.

· 자식들에게 선명한 행사를 가르쳐 몸을 수양하고, 일에 근면하며, 놀거나 장난하는 것을 못하게 하며, 만약 다른 사람과 서로 다투며 헐난하거나 곡직을 막론하고 자기 자식을 먼저 꾸짖는다.

· 빈곤하여도 품행을 바르게 하고, 지조를 굳게 지키며, 부유할지언정 예의를 따르며, 공손한 태도로 사양할 줄 알며,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의 물건일지라도 털끝만큼의 욕심을 내지 않으며, 길에서 유실물을 발견하거나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 준다.

· 자신의 일이든 타인의 일이든 심력을 다하여 근면하며,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 향약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준행하여 조금도 태만하지 않는다.

· 능히 기탁을 받으며, 능히 환난을 구하며, 능히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며, 능히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능히 사람

을 위해 일을 도모하며, 능히 여러 구성원을 위해 일을 처리하며, 능히 다툼을 화해시키며, 능히 시비를 지혜롭게 결단을 내리도록 촉진하며, 능히 이로운 흥(興)을 흥하게 하고 해로운 폐(廢)를 제하도록 하며, 관의 직책을 맡을 경우 능히 직분을 성실히 완수하며, 능히 법령을 두려워하며, 능히 조세(租稅) 시책을 성실히 따른다.

위에 열거한 덕업은 같은 향리의 사람들이 각기 자진하여 실행하고, 서로 근면하며, 잘 실행하는 자가 있거든 유사(有司) 약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職責)에게 알리도록 하고, 유사는 개인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집회 시에 약장(約長)의 우두머리(頭目)에게 알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서 사실을 확인한 연후에 특이한 자는 관에 보고하여 칭찬하고 장려할 것을 청하고, 그 다음에는 선적(善積)에 등록하여 후일 여러 가지 근거에 비추어 상세히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된 행실은 서로 규제한다

과실이라 함은, 몸을 근신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무례하고, 아랫사람을 대함에 은혜로운 정이 없고, 약령(約令)을 준수하지 않는 부류로, 과거에 큰 잘못을 한 자와, 여러 차례 논죄(論罪)하여 벌을 주어도 개선(改愆)치 않고 약령을 위반하는 자는 계명(戒命)한 후 향약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절교하고 서로 맞아들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잘못을 뉘우쳐 이후에는 회개하기를 맹세하고 다시 공동체에 편입되기를 청하는 자는 이를 허락하여 처음 들었을 때의 예와 같이 한다.

「과거의 큰 잘못」이라 함은 부모에게 불효하여 친부모 또는 시부모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형제가 불화하여 동생이 형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근친(近親)의 윗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 등의 부류를 말한다.

별치

· 상별 — 공공의 모임에서 의사가 종료될 때까지 정하에서 있게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말단 별석別席에 앉게 하고, 장자長者 일 때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면책한다.

· 차상별 — 공공의 모임에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면책한다.

· 중별 — 공공의 모임에서 서벽(조선시대에, 벼슬아치가 모여 앉을 때 벼슬의 차례에 따라 좌석의 서쪽에 앉던 벼슬. 의정부의 우참찬, 홍문관의 교리와 수찬, 통례원의 가인의 벼슬이 이에 해당함) 이상의 사람이 면책하며, 장자일 때는 절반으로 즐긴다.

· 차중별 — 공공의 모임에서 존위(한 마을의 어른) 및 유사 이상의 사람이 면책하고, 장자일 때는 가운데 마련한 자리에 나와 앉게 하여 별주한 잔을 마시게 한다. (술은 냉수로 대용한다)

· 하별 — 공공의 모임에서 가운데 마련한 자리에 나와 앉게 하여 별주한 잔을 마시게 한다. (술은 냉수로 대용한다) 장자일 때는 물러나 앉게 하여 충고와 문책을 받게 한다.

· 존자(덕행이 높은 나이 많은 어른)가 잘못이 있을 때는 그의 자제로 하여금 별을 대신 받게 할 수 있다. 장자는 약장이연령으로 비교한다.

· 부모에게 안색을 바꾸어 언어하는 자, 백부모와 숙부모와 형에게 욕질하는 자, 부모는 가난하고 아들은 부유한데 봉양하지 않는 자, 친상에 애통해하지 않고 상중에 음주미식하는 자, 이상의 다섯 가지 잘못을 범한 자는 약장이하가 무시로 집회하여 소환 면책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것을 청하며, 위의 벌에 처한 후 문서에 기록하여 후일 감시하

며, 만약 불복할 때는 제명한다.

· 장자^{長者}를, 즉 아버지의 친구 같은 어른을 손아래 대하듯 무례히 하는 자는 상^上별에 처한다. (장자는 자기보다 약 십오 년 이상의 연장자를 말한다.)

· 장자^{長者}를 욕한 자는 중^中별.

· 처^妻가 부^夫를 구타한 자는 상^上별.

· 부^夫가 처^妻 없는 처^妻를 구타한 자는 상^上별.

· 처^妻가 중^衆인 앞에서 부^夫를 욕하며 꾸짖는 자는 중^中별.

· 정^正처^妻를 소박하는 자는 상^上별.

· 친족과 화목치 못하여 서로 다투고 힐난하는 자는 중^中별.

· 한 마을 안의 남녀가 무례하여 흉이나 허물없이 친밀하게 음탕하고 희롱하는 언사^{言辭}를 하는 자는 차^下중^中별.

· 연소자로서 장자를 구타한 자는 상^上별.

· 연장자로서 연소자를 구타한 자는 중^中별.

· 대략 나이가 서로 비슷한 자들이 서로 구타한 경우에는 차^下상^上별.

· 대략 나이가 서로 비슷한 자들이 서로 꾸짖고 욕하는 경우는 차^下중^中별.

· 다른 집에서도 망쳐 온 자나 행동거지가 거칠고 허황한 자에게 몸을 의지하여 생활한 자는 차^下상^上별.

· 타인의 물건이나 들판의 곡식을 절취한 자는 상^上별. 경미한 자는 차^下상^上별. 절취물은 전부 본래의 주인에게 반환함.

우마를 곡물이 있는 전답에 풀어 놓은 자는, 초범인 경우 중별, 재범인 경우 차상별, 삼범인 경우 상별. 만약 곡물이 성숙한 후이면 적당한 배상을 징수하여 본래 주인에게 내어 줌.

· 송사를 즐겨, 가히 말 것도 달지 않는 자는 중별.

· 타인의 도량물을 훔치거나 전답을 침범하여 경작하는 자는 중별.

· 술에 취하여 남을 꾸짖고 욕하는 자는 차중별.

· 언어에 신뢰가 없는 자는 중별.

· 타인을 무고하여 헐뜯는 자는 상별. 가벼운 자는 차상별.

· 근거 없는 말로 타인을 헐뜯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여 서로 싸우게 하는 자는 차상별. 가벼운 자는 중별.

· 자기의 편리만 도모하고 사리에 몰두하여 타인의 이해를 불원하는 자는 중별. (금전의 고리를 취하는 것도 사리 몰두의 예)

· 너무 인색하여 기구를 서로 대여치 않고 범사가 너무 비루한 자는 차중별.

· 몹시 게을러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돌며 세월을 보내는 자는 상별.

· 뇌물을 받고 청탁을 용허하는 자는 중별. (심한 자는 관에 알림)

· 미신을 숭상하여 음사(부정한 귀신에게 제사를 지냄)를 빈번히 행하는 자는 차중별. 무너는 상별.

· 타인의 물건을 침탈하는 자는 상별. (산림의 도별도 같게 처단)

· 씹씹이를 절약치 못하고 빈핍을 자초하는 자는 하별. 조세공과금을 바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상별.

· 여러 사람이 모인 처소에서 거동이 단정치 못하고 시끄럽게 지껄이며 떠들거나, 실없는 말을 남발하여 다른 사람을 희롱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미한 일을 언론하는 자는, 중하면 중벌, 가벼우면 하벌.

· 타인을 향하여 악언을 하는 자는 하벌. 중하면 중벌.

· 사창(社倉) 각 고을에서 빈민 구제에 쓰는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倉)의 곡식을 실제의 수대로 납입하지 않는 자는 중벌. 곡류(穀類)는 묵은 것을 갈아 내고 다시 장만하여 갖추고 정한 양 외에 더 거두어들임.

· 유사(有司)로서 말은 사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 능히 타인을 단속하지 못하는 자, 교훈(敎訓)이 하역(下役) 지위나 직급이 낮은 소속인원(人員)을 교도(敎導)하지 않은 자, 오장(五臟) 명씩 묶은 조의(條) 우두머리(頭)이 오가(五家) 내의 선악과 길흉을 알리지 않은 자는 차중벌.

·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폐단을 야기하는 자는 상벌.

· 타인의 과실을 보고 직접 대면하여 규제(規戒) (바르게 경계함)치 않고, 사사로이 비의(非議) (남을 비방하여 논함)하여 험극(惡酷) (서로 싫어하여 생기는 틈)을 구성한 자는 차상벌.

· 규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차상벌.

· 약장(約長)이나 유사(有司)가 아니면서 시비를 제멋대로 논의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케 하는 자는 상벌.

· 향약(鄕約)의 여러 집사(執事)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직급의 책임자)가 유사(有司)의 지휘를 받지 않고 상사에게 말이나 클로여쭙어의 논함 없이 혼자서 결단하여 행하는 자는 중벌.

· 집회(集會)시에 늦게 도착하는 자는 하벌.

· 일절 응위(應位) (호응하여 행함) 치 못할 일을 감행한 자가운데 최종한 자는 차상별, 다음은 중별, 가벼우면 하별.

· 향약의 약령을 복종치 않는 자가운데 초범은 차중별, 재범은 중별(벌을 받은 후에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고 원망하는 말이 있는 자는 재범으로 논함), 삼범은 상별, 사범은 제명.

· 이상 상별은 벌을 준 후에 전부 악적에 기록하고, 불복하거나 원만하고 노여워하는 자는 제명한다.

위의 과실은 같은 향약 사람이 서로 규제하다가 듣지 않거든 유사有司에게 고하고, 유사는 사부에 기록하였다가 집회시에 약장에 고하며, 약장이 의리로써 가르쳐서 깨우쳐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고 잘못을 고칠 것을 청원하거든 경중에 따라 벌을 의논하여, 상별은 그 과실을 기록하여 후일을 기다리고 만약 불복하여 과실을 기록한 사람을 원망하는자와 영구히 잘못을 누우치고 깨닫지 않는 자는 제명한다.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의 변명을 허락한다. 언사가 순하고 이유가 바른 자는 불문에 부치고, 만약 꾸미는 말로 이유를 붙여 변명하는 자는 벌 일등(一等)을 가하되 불복하거든 제명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서로 사침에 있어 예절을 지킨다

· 자기보다 스무살 이상은 존자, 열살 이상은 장자가 된다. 길에서 같은 향약의 존자를 만나거든 말에서 내리며, 존자가 말에 오르기를 강하게 청하거든 고개를 숙이고 앞드린다.

· 존자를 보거든 반드시 절하며, 장자를 보거든 두 손을 맞잡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 예를 표한다. 마을 안에서 십오세 연장인 분이면 역시 절하여 예를 표한다.

· 향약 안의 사람으로서 비록 나이가 많지 않으나 덕위가 존대한 자이거나 존자로 대접한다.

· 새해에는 같은 향약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여 새해 인사를 하되, 존대해야 할 나이 많은 어른은 유소자에게 인사하려 가지 않는다.

· 자녀 혼가 시에는 응분한 선물을 보내고, 문서를 작성해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볼 수 있도록 하여, 각기 물품(형편에 따라 땀나 무나 쌀 같은 것도 좋다)을 기증하되, 남자에게는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돌아와 올리는 신귀례 때 주고, 남자의 초례 때에는 햇불 같은 것도 기증하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십리 이상일 때 햇불은 기증하지 않는다.

· 향약 내의 사람이 팔십이나 칠십 이상의 고령에 달하거나 과거를 한 자에게는 각기 술과 안주를 가지고 광장에 모여 치하한다.

· 향약 안의 사람이 삼년상을 마치거든 하례, 즉 축하하여 예를 표하듯이 위로한다.

· 향약 안의 사람이 상을 당했거든 각기 다 가서 조문하되, 당사자나 그 부모 상에는 성복하며, 장례를 치른 지 만 일년이 지난 뒤에 지내는 소상, 이년이 되는 두번째 기일에 지내는 대상 때에 다 가서 조문한다. (근래 혹은 지방에는 이것이 형식으로만 변하여, 상가에 모여 유숙하여 주인으로 하여금 접대에 분망케 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망한 웃음이 나오게 하니, 이러한 폐습은 속히 개혁하여 조문 후에는 즉시 돌아올지며, 부득이 멀리서 왔으므로 숙박이 필요할 시는 서면으로 대신 묻는 것도 무방할 듯하다 — 역자체고) 그리고 각기 능력에 따라 부물을 지참한다.

· 향약 안의 사람이 사망할 시는 유사가 향약 내에 문서를 돌려 회람케 하고, 각기 쌀 한 되와 장례 물품과 죽은 이를 기리는 글을 갖추어 일제히 상을 치르는 곳에 모여 상례 의식을 행한다.

· 상사에 여럿이 모일 때는 음주를 금하며, 상가도 술과 음식으로 내객을 접대하지 않는다. 먼 길을 올 경우에는 객이 먹을거리를 스스로 준비해 와서 먹고 다시 되가져간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주객 모두 규약을 어긴 것으로 친다. 상가가 약소한 뭍은 죽이나 떡과 과일을 대접하는 것은 무방하다.

· 환난상홀 —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다

· 큰 화재가 일어나 가옥과 자산을 모두 소실한 경우에는 쌀 다섯 말 이상을 급여하고, 향약 내 사람들은 각기 장정한 명씩을 내보내 복구작업을 돕는다. 다만 그들에게 하루 동안 양식으로 쓸 쌀과 이영세 마름과 재목 한 가지와 새끼 열 다발을 들려 보낸다. 가옥만 전소되고 자산은 구출하였거든 물건을 가지고 출역만 하고 급미는 필요 없으며, 가옥이 전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복구에 상당한 물건과 노력으로 원조한다.

· 실화하였을 때는 동리 사람은 물론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급히 가서 구한다.

· 향약 안의 사람이 도적을 맞거든 급히 가서 구하고 합력하여 뒤쫓아가 붙잡으며, 만약 재물을 전부 탈취당한 경우에는 향약 가운데서 회의하여 구급할 양미를 지급한다.

· 향약 안의 사람이 중병에 걸려 자력으로 치료하지 못하거든 향약 가운데 유효자가 약을 구하여 구료하며, 만약 전가 죽이 병들어 농사를 폐할 경우에는 각기 힘을 보태어 농사를 지어 주어 굶주림을 면케 한다.

· 향약 안의 사람이 원통한 누명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써 자력으로 죄가 없음을 사실대로 밝혀 구원하지 못하거든, 같은 향약 사람들이 연명으로 관에 알려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한다.

· 향약 안의 사람 중에 나이 많은 처녀가 있으나 빈곤하여 출가시키지 못하거든, 관에 알려 꾸미는 데 드는 비용을 청하며, 향약 중에서도 응분의 부조를 한다.

· 향약 안의 사람 중에 양식이 떨어진 자가 있거든 각자의 처지에 맞게 도와준다.

· 향약 안의 당사자가 사망하거든 쌀 여섯 말 이상을 부조하고, 부모상에는 너 말 이상, 처자상 및 동거 처부모상에는 두 말 이상을 부조하며, 이상 각상의 장례 시에는 각기 인부한 명씩을 보내어 햇불 한 자루와 꽃는 초 한 자루를 휴대하고 발인 전날 저녁에 상가에 가서 장지까지 호위하여 가서 취역하고 필역 후에 집으로 돌아온다.

· 한 집안의 부모형제가 다 향약에 가입하였을 때는, 부의품으로 내는 쌀은 매 사람이 거둬하여 지급해도 좋고, 역사는 거둬하여 참여하지 않는다.

· 향약 내에 위급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오장(다섯 명씩 묶은 조의 우두머리)의 지휘를 기다리지 않고 급히 가서 구하고 향약 내에 기별하여 알리며, 이런 자는 선적에 등록한다.

· 강신(향약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시며 규약을 맺는 일)할 때 연속하여 세 차례를 이유없이 불참한 자는 제명하고, 작은 이유나 사고가 있을지라도 상벌에 부친다.

문화시설분담금·건설지체상금(일단계)、공동시설분담금·건설사업분담금·
건설지체상금(이단계)은 무엇인가

출판도시를 기획하고 추진해 오면서 우리가 세운 원칙 중 하나는 「공정성」입니다.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균형이 깨진다면, 아무리 좋은 과거를 가꿔왔거나 큰 이익이 보장된 미래가 온다 하더라도 이내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해 온 주체로서 가장 유념해야 할 미덕이요 덕목은 「공평함」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나 이 사회로부터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고자 주장해 왔습니다. 즉 출판업이란 이 나라 민족과 사회에 공헌하는 바 크므로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라는 것이었지요. 이런 발상에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앞장서서 주장하고, 갖가지 법적 근거와 전략을 짜내어,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에서 담배·음식료품 등과 함께 제외되었던 출판·인쇄업을 중화학공업이나 전자 및 자동차산업의 반열에 세우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았으며, 토지를 조성원가로 분양받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일단계 팔십칠만오천 제곱미터(이십육만사천사백 평)의 소지(기반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땅)의 대금은 제곱미터당 팔천칠백사십 원(평당 이만팔천 원)이었습니다. 도로와 녹지(수로 포함) 등을

제외한 ^{假處分}가처분 면적이 오십 퍼센트이므로 여러분이 실제로 분양받은 토지대금은 제곱미터당 일만육천구백사십원(평당 약 오만육천 원)이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일을 삼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토지를 싸게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이 사회가 우리를 특혜받은 집단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경계하고 또 경계했습니다. 이런 시비는 지금도 간간히 듣고 있어, 그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르지 않을 때 이런 공격의 화살은 우리의 빈틈을 헤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오만육천 원의 ^{素地}소지 대금이 실제 분양받을 때 왜 제곱미터당 이십이만오천삼백육십 원(평당 칠십사만오천 원)이 되었는가. 원래 소지 대금이 결정된 것은 우리가 분양받던 시점인 천구백구십팔년으로부터 약 십년 전인, 자유로가 조성되던 무렵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의 금융비용, 그리고 조성공사비와 관리비가 더해진 것입니다. 즉 「소지 대금 + 금융비 + 조성비 + 관리비」로, 평당 약 칠십사만오천 원이 된 것입니다. 조성비는 다 아시다시피 통신시설,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로, 교량, 가로등과 그 밖의 조경과 도로교통시설의 공사비로, 우리 주위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인근 토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며 인프라 시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끊임없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는 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 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 모두가 근신하고 신중하게 접

근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회원들 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더 고개를 들고 이 사회를, 국가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주었다면, 그들과 우리 사이의 「공정함」또는 「공평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잠시도 이 문제를 소홀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계 사업에서 文化施設分擔金 문화시설분담금과 建設運轉償金 건설지체상금은 이렇게 해서 발생되었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단계 사업에서도 일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共同建設分擔金 공동시설분담금과 建設事業分擔金 건설사업분담금이 발생되고, 앞으로 建設運轉償金 건설지체상금도 발생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시설분담금은 도시내 핵심공공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해 기준표에 의거, 분양면적에 따라 토지대금의 약 2.82퍼센트에서부터 5.24퍼센트까지 차등 적용하여 거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지체상금은 이천사년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한국토지공사와 개별 명의변경을 추진할 당시 구월 정기이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에 약속된 출판도시 전체 건축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로부터 一日 일일 토지금액의 0.05퍼센트를 거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도 처음부터 출판도시 발전과 공공 프로젝트에 공적 자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입주기업협의회가 도시내의 회원과 회원사이, 도시내의 집단과 집단사이의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단체라면,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위에서 말했던 우리와 국가, 우리와 사회와의 약속인 공적인 문

제를 논의하는 단체라고 할까요. 특히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이 도시가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밝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임원 구성도 우리 출판 관련인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나는 안중근 님 동상 앞에 서서 그분의 왼손 위에 나의 왼손을 올려놓습니다. 한겨울에는 더욱 그러하지만, 한여름임에도 그분의 차가운 손은 제 손끝에서부터 체온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옵니다. 차갑던 그분의 손은 어느새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나의 심장도 이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런 이벤트를 자주 갖습니다. 이 의미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좋은 선배의 말씀을 되새기는 이벤트요, 공부하는 시간이자 마음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 존중해야 할 좋은 생각, 좋은 말들을 잊고 삽니다. 구두선^{口頭線}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나 말을 입으로만 외우지, 행동으로는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사신 안 의사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 우리 민족이 익혀야 할 생각이 있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힘쓰고 또 힘써야 합니다. 이 도시에 우리가 바친 가치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 의사를 비롯한 선인의 가르침이요, 그들의 말씀이 뜻하는 바일 테고,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출판인과 건축가는 열두 해 전, 매우 미래지향적인 뜻으로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를 존중하며, 이의 성공적인 완성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다.

우리는 우리시대에 미만해 있는 건축에의 혐오나 출판에의 불신을 씻어내고 이땅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 다시 말해, 이땅의 민족과 국가 앞에 숭고한 책의 가치를 드높이며 자랑스런 우리 건축문화의 전통을 되살려, 우리의 도시가 추진—건설되는 과정이나 완공된 이후의 현장과 시설이 출판문화의 증흥과 국민교육의 마당으로 쓰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건축가의 건축방식이나 여러 입주자의 다양한 산업행태—시설양식이 존중되면서, 이들이 조화롭게 완성되도록 기법과 지혜를 성실히 짜낼 것이다. 즉, 건축에 있어서나 입주기업의 사업에 있어서 공동성과 협동성의 가치를 추구하되, 개체의 특장과 가치와 이윤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데 그 큰 뜻을 두자는 것이다.

일함에 있어서는 물자와 시간을 아끼며, 일하는 이들과의 건강과 우정을 두터이 하여, 거친 건설현장과 대규모 이주에 따른 위험이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꿈과 예절과 지혜가 넘쳐 흐르는

삶의 동네로 꾸미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도시는 생태도시로 설계되고 운영될 터이므로, 생태이념에 대한 설계자—시공자—입주자들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정중히 서약하면서 설계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가와 출판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각기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둘째, 출판도시의 바탕은 하나의 건축이다. 공동성과 개체성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이 도시는 성공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로이 다짐한다.

셋째, 출판인은 이 기회를 스스로 좋은 건축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로 삼는다. 참다운 건축가의 이상을 받아들여 위대한 책의 생산공간은 마련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한다.

넷째, 건축가는 참다운 건축가로서의 소명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시대의 새로운 건축이 이곳에서 역사 되어야 한다.

다섯째, 설계에 따르는 비용은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산출되어,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의 명예와 이익에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만 그 실제의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 출판인 대표와 건축가 대표는 쌍방간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의 이름 아래 이 계약서를 『위대한 계약서』라 칭한다. 이 『위대한 계약서』는 출판도시의 모든 건축 행위의 기본적 계약이며 개별적 계약은 이와 더불어서만 유효하다. 이를 위하여, 출판인 대표 이기웅과 건축가 대표 송효상이 앞장서 서명하고, 모든 입주자와 건축가가 연기명으로서 약한다.

이천년 십이월 이일, 파주출판도시 인포룸에서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이기웅, 건축코디네이터 송효상

〈^善선한 계약서〉 원문 이천십일년 사월 이십팔일

출판도시 계획이 발의된 지 열두 해 만인 이천년 사월, 일차 계획에 참여했던 출판인들과 건축가들이 「파주 출판도시 시범지구건축설계 계약」을 맺는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이름하여 「위대한 계약(The Great Contract)」을 약속하고 공표한 행사였다. 그 계약은 일차 계획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위험과 온갖 서툰을 가다듬고 잠재우며, 오늘의 성취를 이끌어낸 대들보 역할을 해주었다.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비와 바람의 도시일지》는 그 과정을 응변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일차 계획을 향해 「위대한 계약」을 맺은 지 꼭 열두 해 만인 오늘, 이단계 출판도시에 입주하게 될 우리 출판인, 영화인, 인쇄인, 소프트웨어인 들은 앞으로 이단계 출판도시 설계와 건설에 참여할 대표 건축가들과 설계에 따르는 계약을 준수하는 약속을 공표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위대한 계약」에서 뜻했던 바 「공동성의 실천」은 오늘의 계약에서도 변함없이 준용될 것이다. 우리가 뜻을 함께 하여 모인 오늘은 「위대한 계약」의 시기와 다르다. 오늘의 계약은 일단계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계약에 임하는 우리는 이 계약을 「^善선한 계약(The Good Contract)」이로 명명한다. 모든 것이 불투명했던 황무지 위의 일단계 건설계획은 「위대한(great)」이라고 말할 설정하게 했다. 오늘 우리는 차분한 심정으로, 그

간의 경험을 크게 보완하며, 도시의 성취를 지혜롭게 도모한다는 뜻에서 「선함(good)」을 높이 세우고자 한다. 우리는 일단 단계가 일궈낸 성공 못지않게, 시행착오와 모자람 그리고 은근히 감지되는 많은 오류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그를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다. 「선함(good)」이 그러한 함의^{含意}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과 삶을 꾸려가고 있으며, 새로운 출판, 영상 문화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건축 또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꿈꿔왔고, 조성하려는 출판도시는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며, 더 교육적이고 더 예술적이고, 더 가치^{價値}지향적으로 조성될 것이며, 한국사회의 지적 문화적 공공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우리는 출판도시 이단계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서약함으로써 도시 설계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주와 건축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좋은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둘째, 출판도시는 개별 건축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숨쉬는 생명체이다. 우리는 도시 전체의 공공성과 각 건축물의 개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출판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서도 양보하고 절충하며 협력하기로 다짐한다.

셋째, 건축주는 건축가의 열정과 예술성, 전문성을 존중하며, 우리들이 세운 도시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축가를 최대한 지원하며 협력한다. 건축주와 건축가가 뜻을 함께하는 「동지적 만남」이 우리 출판도시 성공의 전제 조건임을 인식한다.

넷째, 건축가는 건축주의 기업적·생산적 현실을 심도 있게 궁구하여, 그들이 이 도시에서 경제적·문화적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는데 정성을 다한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새로운 건축문화가 출판도시에서 창출되도록 한다.

다섯째, 설계에 따르는 비용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여,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의 명예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양자는 서로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 건축주와 건축가는 출판도시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의 이름 아래 「선한 계약」을 맺는다. 상호간의 신뢰와 이타적 배려에 기초한 이 「선한 계약」은 출판도시의 모든 건축행위의 기본적 계약이며 개별적

계약은 이와 더불어서만 유효하다. 이를 위해 건축주 대표 이기웅과 건축가 대표 김영준이 앞장서 서명하고, 모든 참여기업 대표와 건축가가 연기명으로 서약한다.

이천십일년 사월 이십팔일 청명한 봄날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이벤트홀에서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이단계 건축코디네이터 김영준

쌀을 짓고, 말을 짓고, 인간을 짓는 「책농장의 도시」

문화^{文化}라는 말은 영어 컬처(culture)의 번역어로, 이는 라틴어 쿨투라(cultura)에서 유래했으며, 경작^{耕作}(cultivat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중 가장 근접한 의미의 단어로 「짓다(만들다)」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로 인간은 많은 것을 지어 왔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B. Tylor)가 그의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를 정의 내렸듯이,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 이 모두가 인간이 지은 것입니다.

타일러의 정의는 책^冊의 경우에도 들어맞습니다.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가 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책은 인간의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책은 문화라는 말의 어원인 「짓다(cultura)」라는 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최초로 경작하여 지어낸 것은 밥이나 빵을 의미하는 상징적 곡물인 「쌀」이었습니다. 이 쌀을 지어낸 곳은 땅에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땅을 의미하는 접두사 「agri-」가 「culture」에 붙어 농사(agriculture)라는 말이 태어났습니다. 어원적 의미로는 「땅으로부터 지어낸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땅으로부터 곡물을 짓기 시작하여 점차 더 다양하고 쓸모있고 가치있는 여러 산물들을 지어내기에 이릅니다.

다.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 공산물,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술한 발명품과 창조물 등이 그것들입니다.

한편, 최초로 자연으로부터 쌀을 지어내기 시작할 무렵, 인간은 문자(말)를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영혼(정신)으로부터였습니다. 이로써 고도의 정신활동의 산물을 문자로 담아내기 시작했고, 땅으로부터 지어낸 것들도 문자로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쌀」을, 영혼으로부터 「말」을 지어낸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역사를 지탱해 온 「정신」과 「물질」이라는 큰 두 축에 「말」과 「쌀」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면서도 상징적인 단어를 대체해 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말과 쌀을 「짓는」 행위가 곧 「출판」과 「농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쌀을 지었고, 영혼으로부터 말을 지었습니다. 쌀은 우리의 육체를 살찌울 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주었고, 말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인간이 지어낸 가장 원초적인 창조물인 쌀과 말은 결국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람은 쌀과 말을 만들고, 쌀과 말은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백여 년 전 이 세상을 변혁하고자 했던 혁명가 마르크스(Karl H. Marx)의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이론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가 말한 토대 즉 물질적 생산양식은 (쌀)농사로부터 시작되어 발전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제반 생산양식을 가리키며, 상부구조 즉 사회·정치 등의 정신적 양식의 총체는 곧 문자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총화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마르크스는 철저한 유물론자였기에 「영혼」이라

는 단어, 특히 말이 영혼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할지 모르겠으나, 그가 이 사회를 바라보며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두 축을 상징한 것에서는 나의 생각의 즐거이에 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과 정신의 산물, 그리고 마르크스가 말한 토대와 상부구조, 그 두 축의 근원이 되는 「쌀」과 「말」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매우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 갔고, 쌀과 말은 쌀을 짓는 「쌀농사」와 말을 짓는 「책농사(출판)」로 구체화했으며, 초심으로 돌아가 이 두 가지를 진실되게 구현할 출판도시 삼단계 「책농장의 도시(Book Farm City)」라고 개념이 정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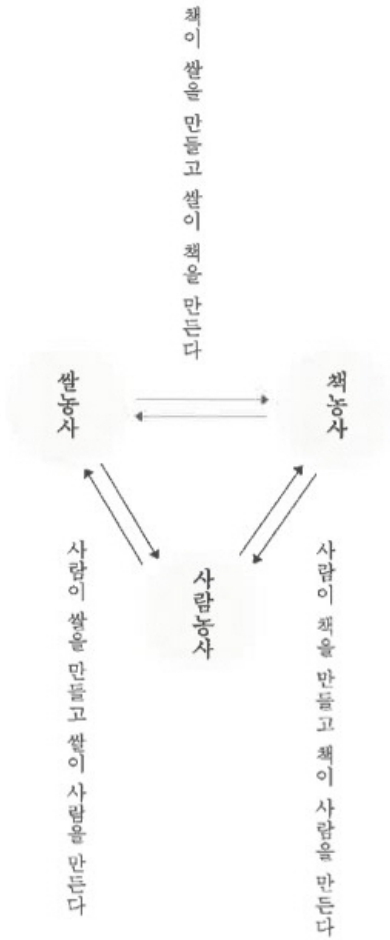
「책농장의 도시」에서는 말 그대로 책농사와 쌀농사가 병행됩니다. 진실된 농부의 마음으로 말을 짓고 쌀을 짓는 마을, 그 말과 쌀을 제대로 받드는 도시, 그렇게 지은 건강한 말과 쌀로 인해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 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내가 구상한 출판도시 삼단계의 기본원리입니다.

쌀농사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천하의 가장 큰 본령」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로부터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뿐 아니라, 팔만대장경,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실의궤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찬란한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책농장의 도시」에서 거창한 일을 벌이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책농사와 쌀농사를 직접 지

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진실로 가치있는 일이란 무엇인지 성찰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치는 저절로 뒤따라올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도시 삼단계 기본개념



간디 (Mahatma Gandhi) 가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스와라지」의 상징은 실 갖는 물레였습니다. 물레는 「비폭력」의 상징이었고, 「자급자족」의 다른 말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착취와 지배를 제거하는

길」이었습니다. 물레에서 실을 지어내는 것은, 우리에게는 논에서 쌀을 짓고 말을 통해 책을 짓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쌀과 말이 결국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해 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출판도시 삼단계는 일, 이단계와 연결하여, 현재 파주시와 고양시의 절대농지 백여만 평에 조성하고자 합니
다. 쌀농사와 채농사가 주가 되어 이를 통해 사람농사를 지어 나가며, 여기서 파생되는 환경 중심의 종합 미디
어 시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삼단계 땅의 팔십오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는 절대농지에서는 영구히 쌀농사를 지어 자급할 것이며, 나머지
십오 퍼센트의 땅에서는 채농사를 비롯하여 영상·방송·정보통신 등 미디어 산업이 들어설 것입니다. 첨단 문
화산업이 가장 원시적인 쌀농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우리를 있게 한
과거를 볼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일깨워질 것입니다. 자급한 건강한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진실된 말
을 받드는 마을, 이 「채농장의 도시」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鄉約

공동성을 실천하는 鄉約향약의 도시

이기용 씀

발행일 이천십삼년 시월 십팔일

발행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五二四一三

인쇄 및 제작 (주)상지사퍼앤비

값 만원

* 이 책은 이천십이년 사월에 발행된 《출판도시를 향한 책의 여정》 두번째 권의 일부 원고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